



생활화학제품 중독사고란?

세제나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사용 중 신체 일부에 접촉하거나, 음료 등으로 오인하여 마셔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한국소비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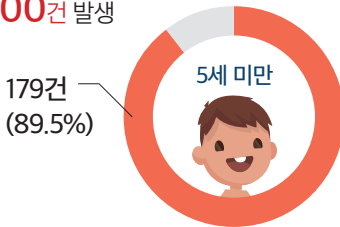
충청북도

어린이 생활화학제품 중독사고 현황 (2015~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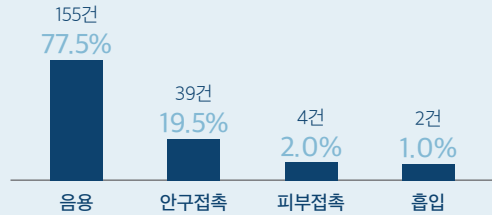
5세 미만 어린이가 대부분 차지

3년간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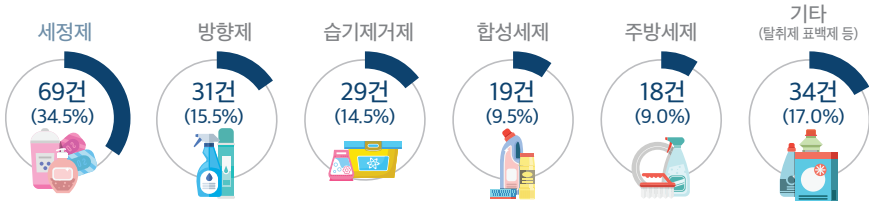
200건 발생



입으로 마시거나, 눈에 접촉하는 사고 다발



세정제, 방향제, 습기제거제 등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 주의!



※ 자료 출처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중독사고 사례

- 3세 남자 어린이가 가정에서 락스를 마시고 화학물질 중독증상으로 복통 및 구토 발생하여 병원치료
- 1세 여자 어린이가 가정에서 컵에 따라놓은 액체세제를 마시고 화학물질 중독증상으로 병원치료
- 0세(7개월) 여자 어린이가 가정에서 방향제 스틱을 입에 물고 빨아서 화학물질 중독증상으로 병원치료



생활화학제품 중독사고 예방요령

어린이가 제품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근처에 없을 때에만 제품을 사용합니다.

가정용 세제 삼킴사고 예방을 위해 평소 어린이에게 화장실과 세탁실은 놀이 공간이 아니라고 교육합니다.

낮은 수납장에 제품을 보관할 경우 수납장을 잠그거나 제품에 어린이 보호표장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생활 화학제품 중독사고 예방요령

날개의 제품을 용기 외부에 두지 않습니다.

사용 후에는 높은 선반과 같이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고 어린이가 볼 수 없는 곳에 제품을 보관합니다.

제품 용기를 바꾸지 않고 원래 용기 그대로 사용하며, 다 쓴 제품 용기를 다른 물건, 특히 음식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시 대처법

생활화학제품을 삼키거나
빨아 먹은 경우 억지로 토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품이 눈에 들어간 경우 눈을
비비지 말고 흐르는 물로 씻어
낸 후 병원치료를 받습니다.

- ➔ 억지로 구토하게 하는
경우 토사물 흡인, 식도
손상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 입과 얼굴을 철저히 행구고
병원 응급실로 갑니다.
- ➔ 병원 방문시 어린이가 삼킨 제품의
성분, 삼킨 양 등을 확인하여 의사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피부에 접촉제 등이
묻었을 경우 무리하게 제거
하지 말고, 미지근한 물과 세제를
이용해 제거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 신청

국번 없이 **1372** (통화요금 발신자 부담)

위해정보 신고

홈페이지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www.ciss.go.kr

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플레이 **위해정보신고** 검색 후 다운로드